

## 란제리룩의 디자인 분석 및 실물 패턴제작

윤진아\* · 이명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Design Analysis and Apparel Patternmaking of Lingerie Look

Jin-Ah Yoon\* · Myoung-Hee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6. 7. 19 투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patterns for lingerie look after examining expressive characteristics and constructive elements of lingerie look. As underwear became outerwear, position of wearing, materials, and details had changed, and the phenomenon to expose one's body has increased. The constructive elements found in the lingerie look were classified into silhouette, fastening, dart, and cutting line. Many of corset looks revealed cutting lines such as diagonal, perpendicular, and horizon. Brassiere look used perpendicular cutting lines or horizontal cutting lines passing through the bust point in order to highlight the volume by adding darts. There were styles of chemise looks that used princess lines or separately added a brassier on the breast.

Based on the examination of the elements, a total of four apparel works were created, including one flat pattern and three draping patterns. With new infra-apparel designs and patterns, this study was able to artificially highlight the body and express the beauty of costume through revelation of body. In addition, it explored the possibility that the phenomenon that underwear becomes outerwear may be a new idea of dress designing.

Key words: lingerie look(란제리룩), underwear(언더웨어), construction element(구성요소), pattern(패턴)

## I. 서론

현대에는 옷차림의 규범이 분열, 혼돈되는 시대로 의복의 표현방법이 다양하게 시도되며, 이제 더 이상 패션에 있어서 고정된 법칙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다양한 사고와, 기술의 발달, 패션 스타일의 빠른 계승, 대중 매체의 발달 등으로 겉옷과 속옷의 선이 흐려져 속옷은 단순히 겉옷 안에 입혀지는 의복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속옷의 형태를 띠면서 겉옷으로 입혀지는 의복까지도 포함하게 되었다.<sup>1)</sup> 90년대 이후 패션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속옷의 겉옷화 현상은 1990년 미국의 인기가수 마돈나(Madonna)가 코르셋드레스를 입고 공연함으로써 속옷과 겉옷을 구분해 오던 기존의 가치관을 파괴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또한 1993년에는 뉴욕의 메트로 폴리탄 박물관에서 '인프라 어패럴(Infra-Apparel)'을 주제로 한 복식전이 개최되어 속옷을 모티브로 한 유행현상이 90년대 패션의 한 경향임을 보여주었다.<sup>2)</sup> 따라서 속옷의 형태를 띠면서 겉옷으로 착용되는 란제리룩은 오늘날 하나의 패션 룩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속옷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는 속옷의 역사적 변천을 다룬 김교옥<sup>3)</sup>, 최영옥<sup>4)</sup>, 오경숙<sup>5)</sup>, 박길순<sup>6)</sup>, 이순자<sup>7)</sup>의 연구가 있고, 문화와 사회현상의 관점에서 속옷의 겉옷화에 대하여 논의한 이상례<sup>8)</sup>, 라의숙과 남윤자<sup>9)</sup>, 이의정과 양숙희<sup>10)</sup>의 연구가 있다. 또한 최원<sup>11)</sup>, 고영아와 최현숙<sup>12)</sup> 최은희와 송미령<sup>13)</sup>은 겉옷화된 속옷의 디자인과 함께 작품을 제작하였다. 최원은 에로티시즘과 해체주의의 관점에서 연구하였고, 고영아, 최현숙은 에로티시즘 측면에서, 최은희, 송미령은 에로티시즘, 페미니즘, 해체주의, 세기말적 경향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고 작품을 제작하였다.

지금까지의 속옷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는 역사적 고찰이나 속옷의 겉옷화의 사회 문화적 측면 연구, 작품제작 위주의 논문 등이 있으며 속옷의 구성요소나 패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속옷과 겉옷의 경계가 모호해져 점차적으로 속옷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으므로, 겉옷화된 속옷의 패

턴에 대한 연구는 필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인체의 체형에 적합한 제품의 디자인을 위해서는 패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좋은 디자인의 의복이 만들어 질 수 없기 때문에 고품질의 의류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좋은 디자인 뿐 아니라 정확한 패턴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속옷의 겉옷화 현상에 나타난 표현적 특성을 알아보고 그 구성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의복디자인의 구성요소에는 선, 형태, 색채, 재질 등이 있으나 구조적 디자인의 개념<sup>14)</sup>에 입각하여 선과 형태를 중심으로 구성요소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란제리룩의 표현적 특성과 구성요소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물제작에 필요한 패턴을 연구하는데 있다. 실물 패턴제작은 디자인에 따라 평면제도법, 혹은 입체재단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가 있으므로 두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여 실물 패턴을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패턴의 정확성, 실루엣의 자연스러움과 기능성, 미적 요소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과 패턴을 개발하며 실물 제작을 통하여 란제리룩의 디자인 창안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둔다.

연구 범위는 과거 속옷의 겉옷화가 현저히 나타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2005년까지의 파리, 밀라노 컬렉션을 중심으로 사진 자료들을 고찰하면서 현대패션에 두드러지게 란제리룩이 표현된 코르셋, 페티코트, 브래지어, 슈미즈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분석내용을 기초로 하여 란제리룩의 디자인 작품을 창작하고 디자인 별로 패턴 작품을 제작하였다.

## II. 란제리룩의 표현적 특성

1990년대에 이르러 해체주의적 경향과 페티시즘이 결합되어 속옷이 겉옷화되고 겉옷이 속옷화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겉옷에서도 속옷의 이미지나 형태가 디자인의 모티브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속옷과 겉옷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는 사실을 발견 할 수 있다.

란제리룩은 은폐된 부분을 전면적인 노출로 의도적인 전환을 시키고 있는 점과 겹옷과 속옷을 동시에 드러내면서 겹옷의 역할을 동반하고 있는 점, 통일성이 파괴된 의상 등이 해체주적 성향과 페티시즘의 성향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란제리룩에서 나타난 표현적 특성은 착용 위치, 신체 노출, 소재, 디테일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란제리룩은 의복유형에 따라 코르셋 룩, 페티코트 룩, 브래지어 룩, 슈미즈 룩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속옷이 속옷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고 겹옷의 기능 할 때 부르는 명칭으로 코르셋 룩이라고 하면 겹옷화 한 코르셋을 말하는 것이고 페티코트 룩이라고 하면 속에 입는 페티코트를 겹에 입는 스타일을 말하는 것<sup>15)</sup>이다. 그 밖에 브래지어 룩, 슈미즈 룩도 같은 의미이다.

## 1. 착용 위치

란제리룩은 속옷의 형태를 그대로 일상복에 응용한 것으로, 겹으로 나와 겹옷으로 입혀지거나 다른 아이템과 조합된 스타일로 속에 입혀졌어야 할 속옷이 밖으로 나와 착용위치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1990년 골띠에(J. P. Gaultier)에 의해 디자인되고 마돈나에 의해 선보였던 코르셋 드레스(corset dress)<sup>16)</sup>(그림 1)는 대중들로 하여금 속옷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그 전에도 몇 차례 있었던 속옷을 모티브로 한 노출 성격의 컬렉션이 1983년 파리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을 통해 속옷의 겹옷화가 처음 소개되었던 것과는 달리 속옷의 완벽한 대중 노출과 겹옷으로서의 완전한 스타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크게 달리하고 있다.<sup>17)</sup> 이것을 계기로 속옷 같은 겹옷, 겹옷 위에 입는 속옷 등 일상복과 속옷이 믹스된 스타일이 계속해서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을 통해 발표되면서 속옷류는 더 이상 속옷이 아닌 하나의 완전한 패션스타일로 인식되었다.

〈그림 2〉는 1983년 골띠에(J. P. Gaultier)의 봄, 여름 여성을 위한 '다다이즘(Dadaism)' 컬렉션에서 등장한 모습으로서 바지의 허리부분을 여미지 않아 의도적으로 속옷을 겹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착장은 90년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유행 스타일이 되었으며, 캘빈클라인(Calvin Klein)의 속옷 광고에서는 헐렁한 진이 팬티의 허리밴드를 약간 노출시키면서 힙에 낮게 걸쳐졌다(그림 3).

모스키노(Moschino)의 작품은 브래지어를 그대로 탑형으로 바꾸어 겹옷화시켜 소녀스러움과 여성스러움을 잘 나타내주었다(그림 4). 맥퀸(Alexander McQueen)의 작품은 코르셋에 가터벨트(garter belt)가 달린 형태로 전위적으로 표현 되었다(그림 5).

페레(Gianfranco Ferre)의 작품은 속옷으로서의 페티코트의 역할을 주로 했던 스타일을 겹옷화시킨 스타일이다(그림 6).

## 2. 신체 노출

인간은 의복으로 신체를 은폐하여 도덕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인체의 성적인 부위를 상징화하여 성적인 흥미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복식사를 통해 보면 의복의 변천은 노출과 은폐의 반복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sup>18)</sup> 인체의 노출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적극적이며 직접적인 성적 쾌락성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 시대의 가치관이나 종교관념, 사회현상에 따라 노출되는 부위와 정도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가슴, 힙(hip), 등, 다리의 노출로 인하여 관능적인 모습을 표현해 왔다.

90년대 이후 그물, 망사, 메쉬, 니트 등 얇고 섬세해진 신소재를 통해 피부가 투명하게 드러나 비치게 되는 섹시한 이미지가 더욱 잘 표현되었다.<sup>19)</sup> 또한 하나의 옷 속에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형태가 결합되었을 때 용도나 형태가 비슷한 종류끼리의 결합이라면 눈에 거슬리지 않는다. 그러나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종류의 옷이 결합 되면 흔히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발적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카발리(Roberto Cavalli)의 브래지어와 드레스가 결합된 옷(그림 7), 맥퀸(Alexander McQueen)의 가터벨트와 코르셋이 결합 된 옷(그림 5) 등을 들 수 있다.

골띠에(J. P. Gaultier)의 비정형적이고 아방가르드한 실루엣은 가슴라인의 간접 노출을 강조하기 위해 흰색 브래지어를 얇게 비치는 부드러운 검정

색 레이스 소재와 함께 매치시켜 강한 시각적인 대비감을 살렸으며, 직접적인 노출보다 더 자극적인 여성의 관능미를 나타냈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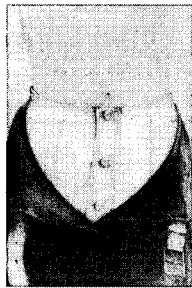
미에 대한 가치는 시대에 따라 변화며, 특히 여성의 속옷 또한 세련미와 정교한 기법을 갖춘 화려한 형태의 옷으로 다양하게 변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네크라인을 깊게 파서 가슴부위로 시선을 끌게 하거나 등과 엉덩이를 대담하게 복식 밖으로 직접 드러내거나 엇보이게 하여 인체의 선을 표현하는 성적 매력을 나타내게 하는 디자인이 많이 나오고 있다.

### 3. 소재

속옷이 걸옷화 되면서 소재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과거 고래뼈나 나무, 철제와 같은 견고한 소재로 허리, 가슴, 엉덩이 부분에 강한 압박을 주었던 코르셋은 20세기에 들어와 여성해방운동과 함께 사라졌다. 이후 다시 코르셋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20세기 중반에 새로이 개발된 나일론이나 신축성 소재를 레이스와 함께 사용하여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형태로 고안되어 딱딱함으로 인한 착장



<그림 1> 마돈나의 코르셋 룩<sup>20</sup> 1990 Spring



<그림 2> Jean Paul Gaultier<sup>21</sup> 1983 Spring



<그림 3> Calvin Klein<sup>22</sup> 1993 Spring



<그림 4> Moschino<sup>23</sup> 2005 Sp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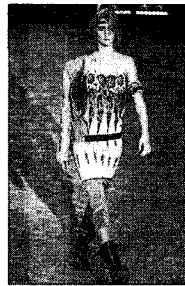
<그림 5> Alexander McQueen<sup>24</sup> 2005 Spring



<그림 6> Gianfranco Ferré<sup>25</sup> 1998 Sp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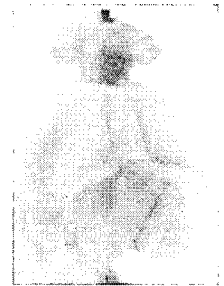
<그림 7> Roberto Cavalli<sup>26</sup> 2005 Spring



<그림 8> Jean Paul Gaultier<sup>27</sup> 2001 Spring



<그림 9> Gianfranco Ferré<sup>28</sup> 2000 Spring



<그림 10> Comme des Garçons<sup>29</sup> 1990 Fall



<그림 11> Roberto Cavalli<sup>30</sup> 2003 Fall



<그림 12> Thierry Mugler<sup>31</sup> 1991 Spring



<그림 13> Vivienne Westwood<sup>32</sup> 1997 Fall

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었다. 과거의 허리를 조이는 역할이 많이 약화되었으며 데님이나 니트도 많이 쓰이게 되었다.

특히 첨단 섬유 기술의 발달은 겉옷과 속옷의 소재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란제리룩의 패션 현상을 가속화 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소재에 의해서 신체가 노출되는 시스루룩은 가볍고 얇은 옷감이 선호되어 몸매를 드러내던 것이 겉옷으로 변형된 것이다. 시스루는 투명한 옷감으로 시폰 이외에도 레이스를 사용하여 대담한 룩을 제시하기도 하였다(그림 8).

〈그림 9〉는 페레(Gianfranco Ferre)의 작품으로 비닐소재로 패티코트에 버팀살대를 넣었던 실루엣을 보여준다. 〈그림 10〉은 숨을 걸감 소재로 사용하여 스커트의 폭을 확대시킨 폼 드 가르송(Comme des Garçons)의 작품이다.

종전에 속옷의 재료로만 주로 쓰이던 폭 끼는 파워 스트레치(power stretch) 소재<sup>33)</sup>, 레이스, 매쉬 등 속이 훤히 비치는 소재들이 여러 카테고리에 다양하게 사용됨으로써 겉옷과 속옷의 소재구분을 없애지게 했을 뿐 아니라 계절에도 상관없이 입을 수 있도록 모든 시즌에 다양한 소재가 등장하였다.

#### 4. 디테일

의복을 여미는 목적으로 사용된 벨트나 버클, 지퍼가 기능적인 용도를 넘어서 장식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속옷을 디테일화 시킨 작품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카발리(Roberto Cavalli)는 여성스런 꽃무늬의 드레스에 전통적인 스토마커 형태의 속옷인 코르셋을 벨트 형태로 변형시킨 스타일로 허리를 강조하였고(그림 11), 뮈글러(Thierry Mugler)는 코르셋의 디테일인 타이트 레이싱(tight-lacing)을 목선까지 사용하여 관능미를 강조하였다(그림 12). 또한 가터벨트를 디테일로 사용한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의 작품도 있다(그림 13).

지금까지 여러 디자이너들의 작품에서 속옷의 디테일을 액세서리나 그 밖에 겉옷의 디자인에 사용한 것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과거에는 겉옷에 활용하기를 꺼렸던 것을 예술적인 시각으로 재조명하여

변화를 준 것이다.

### Ⅲ. 란제리룩의 구성요소

의복디자인의 요소에 대하여 이호정<sup>34)</sup>은 선, 형태, 색채, 소재, 문양으로 분류하였고, 이은영은 선, 색채, 재질로 분류하면서 형태를 선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의 요소 중 색채와 재질을 제외하고 구조적 디자인에 해당하는 선과 형태의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의복의 구조적 디자인 과정에서는 실루엣의 결정과 실루엣 안의 각 부분의 크기, 형태, 위치 등의 결정이 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결정의 결과물로 패턴이 만들어지며, 패턴에 따라 옷감을 재단하여 옷을 만들 수 있다.<sup>35)</sup> 패턴제작은 의복구성의 기초가 되는 과정으로서 의복의 구조적 디자인에 따라 패턴 형태가 분류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 의복의 구조적 디자인에 영향을 주면서 패턴제작 분류에 기초가 되는 특성을 의복구성요소라 보고 의복구성요소를 실루엣, 절개선, 다투, 여밈으로 분류하여 란제리룩의 디자인을 조사하였다.

#### 1. 실루엣(silhouette)

의복 외양의 가장 중요한 윤곽은 의복 실루엣과 신체의 미가 적절하게 조화됨으로서 이루어진다.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맞춤속옷이 등장할 정도로 코르셋이나 거들, 웨이스트 니퍼와 같은 체형보정용 속옷의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상체의 실루엣은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이즈를 줄이고 조이는 현재의 패션 경향의 영향이라 보여진다.

코르셋 룩은 허리를 가늘게 조여주고 있으며, 하의는 상대적으로 스커트를 크게 부풀려 아우어글래스 실루엣을 표현하였다(그림 5, 15).

패티코트 룩은 인공미의 강조와 인위적인 과장을 특징으로 하는데, 상체는 허리를 조이면서 하의의 실루엣을 과장시켜 에로틱한 면을 표현하려는 의도를 지니기도 한다. 〈그림 14, 16〉은 스커트를 부풀

림으로써 허리를 더욱 가늘어 보이게 한 형태이고, <그림 17>은 17세기 중엽에 여러 겹의 페티코트를 착용한 형태를 변형시킨 디자인으로 이 작품들은 모두 아우어글래스 실루엣을 보여준다.

브래지어 룩의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스타일은 스포츠 룩에 많이 응용되는 운동복이나 휴양복으로 주로 입혀졌던 스포츠 브래지어가 있다(그림 18).

슈미즈 룩의 실루엣은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한 타이트 실루엣이 가장 보편적이다(그림 19, 20). 또한 H라인 실루엣으로 몸에 자연스럽게 흐르는 듯한 실루엣도 많은 편이다(그림 21).

과거에 코르셋으로 신체를 압박했던, 인체미의 표현에 중점을 두어 허리를 가늘게 과장하는 아우어글래스 실루엣이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다양한 소재와 구성으로 부드럽고 섹시한 여성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실제적으로 허리를 즐라매었던, 가슴과 엉덩이의 강조로 인한 착시효과에 의해서든 간에 역사적으로 바로크, 로코코, 빅토리아 시대의 복식에서와 같은 맥락에서 허리를 중심으로 상당히 타이트한 의복의 느낌을 주는 타이트 실루엣과 같은 신체에 밀착된 바디 컨셔스(body conscious)룩 또한 많이 나타났다.

## 2. 여밈

과거 코르셋의 특징적인 여밈으로 주로 사용되었던 타이트 레이싱이 여성의 걸음의 토르소를 따라 등 뒤에서 묶여진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코르셋이 매우 관능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는 타이트 레이싱에 의해 조여진 코르셋을 푸는 행위가 에로틱한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sup>36)</sup> 과거 뿐 아니라 현재에도 그러한 성격을 반영한 디자인들이 많이 있는데, 카발리(Roberto Cavalli), 페레(Gianfranco Ferre)의 드레스(그림 22, 23) 뒷부분과, 골띠에(J. P. Gaultier)의 작품(그림 1)이나 뮤글러(Thierry Mugler)의 작품(그림 12)에서와 같이 앞부분의 과감하고 에로틱한 스타일에서 그것을 뚜렷이 볼 수 있다. 대부분 타이트하게 조이지 않고 넓게 묶어 안이 보이는 형태로 처리하여 여밈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디테일적인 효과까지 함께 나타

내고 있다(그림 24).

페티코트 룩의 여밈은 속옷으로 착용했을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뒤여밈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옆 여밈을 사용한 것(그림 25)도 있다.

브래지어 룩은 여밈이 없는 풀 오버스타일로 여기에서 대부분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하여 여밈을 없앤 스타일이 가장 많다(그림 4, 26).

슈미즈 룩은 대부분 여밈이 없는 스타일로, 몸에 흐르는 듯한 실루엣으로 표현되었으며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한 풀 오버 스타일이 많다(그림 21, 27).

벨트나 지퍼, 혹, 타이트 레이싱 등이 현대 패션에서는 여밈의 목적인 기능성 뿐만 아니라 의복의 미적가치를 높여주는 장식적인 용도로도 사용되었다. 특히 지퍼의 여밈과 열림에 대한 기능의 이중성은 착용상태에 따라 양면적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sup>37)</sup>, 타이트 레이싱 또한 여밈의 역할 뿐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에로틱한 상상을 강조하는 디테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절개선과 다트

절개에 의한 방법은 직물 자체에 구멍을 뚫거나 컷팅 시킨 방법으로, 슬릿, 슬래쉬, 컷 아웃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들은 옷의 어느 특정한 일부분을 잘라 제거하거나 서로 엮어줌으로써, 주의를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서 작은 면적의 노출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sup>38)</sup>

코르셋 룩은 여러 가지 형태의 다트 머니플레이션을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스타일은 가슴부위에서 사선으로 재단 된 것(그림 28)과, 수직절개를 사용하여 위에서 아래까지 1~3개의 절개를 넣어 피트 시킨 형태가 있다(그림 29). 페티코트 룩은 대부분 티어드 스커트 형태로 다트를 없앴고, 절개선은 대부분 수평형태를 사용하였다(그림 14, 30). 브래지어 룩은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하여 절개선이나 다트가 없는 경우가 많다. 스판망사와 레이스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여성미를 나타낸 것(그림 26), 걸음안의 브래지어가 비쳐 관능미와 경쾌함을 나타내게 한 것 등이 있다(그림 18). 슈미즈 룩은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해 다트나 절개선을 없애고 몸에 밀



<그림 14> Gianfranco Ferre<sup>39)</sup> 2000 Spring



<그림 15> Thierry Mugler<sup>40)</sup> 1991 Spring



<그림 16> Yohji Yamamoto<sup>41)</sup> 1999 Fall



<그림 17> Antonio Berard<sup>42)</sup> 2004 Fall



<그림 18> Dolce & Gabbana<sup>43)</sup> 1995 Spring



<그림 19> Dolce & Gabbana<sup>44)</sup> 2001 Fall



<그림 20> Dolce & Gabbana<sup>45)</sup> 2004 Spring



<그림 21> Rocco Barocco<sup>46)</sup> 2004 Spring



<그림 22> Roberto Cavalli<sup>47)</sup> 2004 Spring



<그림 23> Gianfranco Ferre<sup>48)</sup> 2001 Spring



<그림 24> Rocco Barocco<sup>49)</sup> 2003 Fall



<그림 25> Moschino<sup>50)</sup> Spring 2004



<그림 26> Issey Miyake<sup>51)</sup> 2005 Spring



<그림 27> Gianfranco Ferre<sup>52)</sup> 2005 Sp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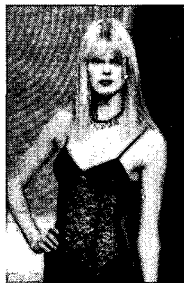
<그림 28> Alexander McQueen<sup>53)</sup> 2002 Spring



<그림 29> Gianfranco Ferre<sup>54)</sup> 1998 Spring



<그림 30> Gianfranco Ferre<sup>55)</sup> 2000 Spring



<그림 31> Rocco Barocco<sup>56)</sup> 2004 Spring

착되는 형태(그림 19)와 프린세스 라인이나 허리 다트를 넣어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나타낸 것이 있다(그림 31).

절개선이나 다트의 사용은 소재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스트레치 소재가 많이 사용되는 경향에 따라 강조하는 부위를 제외하고는 풀 오버 스타일로 표현되기도 한다.

다트의 사용이 있을 경우 대부분 브래지어 아래에서 수직절개선을 사용한 디자인이 가장 많다.

#### IV. 작품 디자인과 패턴 제작

본 연구에서는 목표 집단을 20대로 정하였으며, 입체재단과 평면재단방법을 사용하여 패턴을 제작하고자 한다. 란제리룩에 적용되는 의복디자인 작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입체재단에 의한 방법으로 2작품, 입체재단과 평면패턴을 함께 사용한 방법으로 1작품, 평면패턴 방법으로 1작품을 제작하였다. 인체 표준치수는 2004년도 Size Korea의 측정치<sup>57)</sup>와 비교하여 20대 표준치수와 가장 근접한 바디를 선정하여 그 사이즈를 기초로 하였다.

바디 사이즈와 20대 표준치수는 <표 1>과 같다.

<표 1> 인체표준치수 및 바디 사이즈

(단위: cm)

구분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허리둘레	어깨사이길이	등길이	유장	유폭
인체표준치수 20대	82.2	90.8	67.3	39.9	38.1	24.9	17.3
바디치수	86 (84a)	88	66.6	38	38	26	16

(a: cap을 착용하지 않은 치수)

##### 1. 디자인과 패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패션 작품에서 살펴본 란제리룩의 표현적 특성과 구성요소를 접목시켜 작품을 제작하였다.

패턴제작에 필요한 구성요소는 실루엣, 여밈, 절개선과 다트로 나누어 적용하였다. 중점적으로 활용한 디자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란제리룩의 표현적 특성 중에서 착장위치

의 변화, 노출의 심화, 디테일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디자인하였다.

둘째, 란제리룩의 구성요소 중에서 절개선과 다트를 활용하여 노출과 피트성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여성의 가슴을 부각시킨 입체적인 브래지어 형태를 응용하여 겉옷화된 속옷의 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셋째, 실루엣은 인체미의 표현에 중점을 두어 피트 되는 실루엣을 주로 채택하여, 아우어글래스 실루엣과 타이트 실루엣으로 전개하였다.

넷째, 타이트 레이싱의 여밈 형태를 이용하여, 넓게 노출된 면적을 지그재그 형태로 끈으로 조임으로써 피트성을 주고, 끈을 사용하여 호기심을 자극하며, 신체운곽의 노출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하였으며, 타이트 레이싱을 여밈의 목적이 아니라 디테일로 사용하여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또한 본 작품은 패턴제작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실물작품은 흰색 머슬린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절개선에 넣은 테입도 흰색의 테입을 사용하였다. 머슬린은 30수 면사의 평직으로서 직물의 두께는 0.45mm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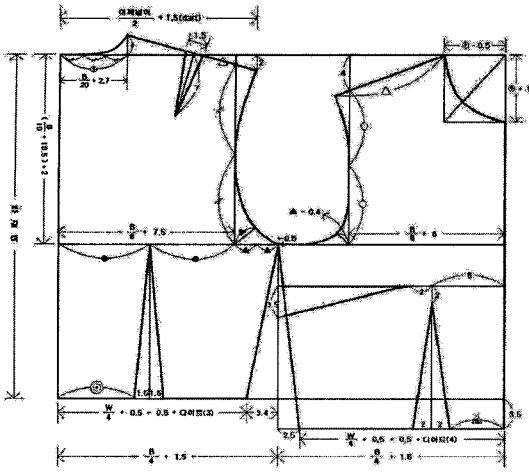
평면패턴의 기본 원형제작은 기존의 기본원형 패턴<sup>58)</sup>을 참고하여 제도하였다.

기본 원형 제도는 <그림 32, 3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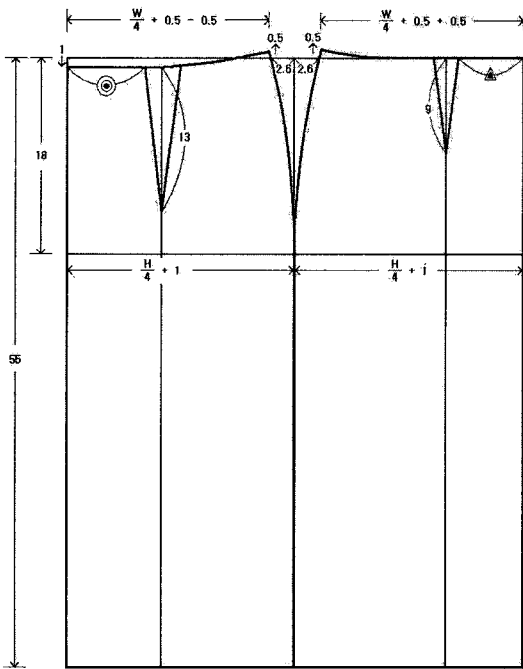
##### 1) 작품 I

작품 I은 란제리룩 중 어깨 노출에 초점을 맞춘 브래지어 형태를 중심으로 한 슈미즈 룩이다. 디테일과 착장위치 변화의 측면에서는 허리 절개선마다 테입을 봉재하여 디테일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슈미즈와 브래지어를 겹옷으로 착용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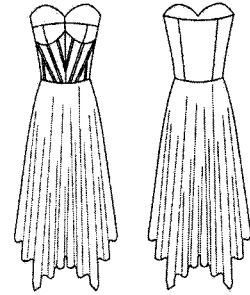
<그림 32> 길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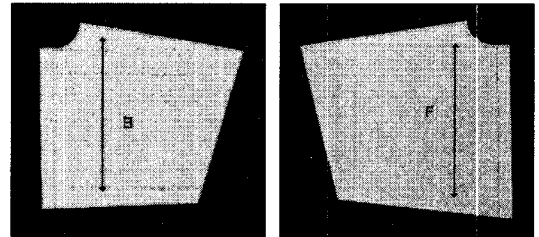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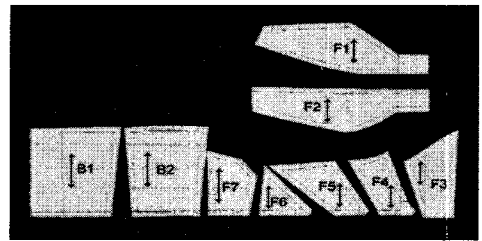
<그림 33> 스커트 원형

구성요소로는 상의에 여러 줄의 사선 절개선을 사용하여 타이트한 실루엣을 나타냈으며, 헝커치프 햄라인의 스커트와 조합시킨 것이 특징이다.

<그림 34>는 사선절개선을 응용한 슈미즈와 브래지어의 도식화이며, <그림 35>는 작품 I의 패턴이다. <그림 36>은 패턴을 봉제하여 제작한 실물사진이다.



<그림 34> 작품 I의 도식화



축도 10 20Cm

<그림 35> 작품 I의 패턴



<그림 36> 작품 I의 실물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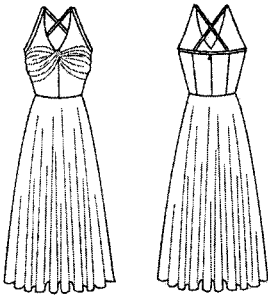
4) 작품 II

작품 II는 란제리룩 중 노출에 중점을 둔 디자인이다. 긴 슈미즈 드레스 앞면 상의에 트위스트 셔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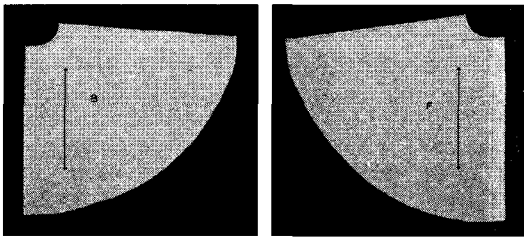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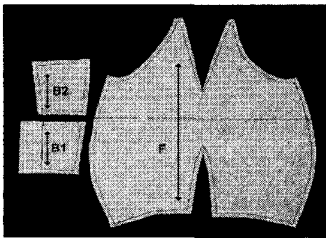
을 준 브래지어를 중심으로 가슴을 깊게 파으며 가슴 아래 중심선은 슬릿처리를 하여 노출에 의한 색시함을 강조하였다. 디테일과 착장위치 변화의 측면에서는 가슴의 셔링이 디테일적인 효과를 주었고, 슈미즈와 브래지어를 겹옷으로 착용하게 하였다. 스커트의 플레어는 여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구성요소로는 브래지어 아래의 수직 절개선으로, 간접 노출에 의한 에로틱함을 표현하였다.

<그림 37>은 셔링을 응용한 슈미즈와 브래지어의 도식화이며, <그림 38>은 작품 II의 패턴이다. <그림 39>은 셔링을 응용한 슈미즈와 브래지어 패턴을 봉제하여 제작한 실물사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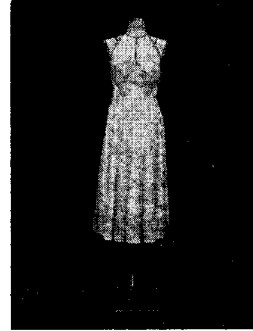


<그림 37> 작품 II의 도식화



축도 10 20Cm

<그림 38> 작품 II의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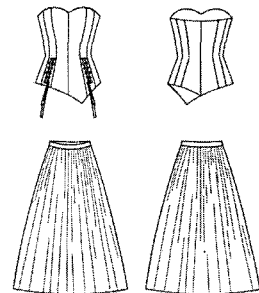
<그림 39> 작품 II의 실물사진

### 3) 작품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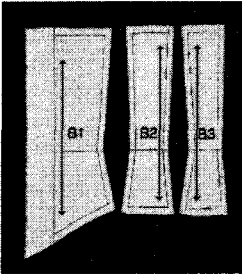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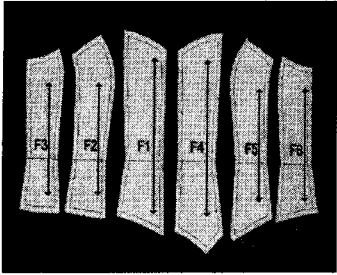
작품 III은 란제리룩 중 코르셋 룩의 디테일을 강조한 것으로, 코르셋과 타이트 레이싱 요소를 사용한 디자인이다. 타이트 레이싱을 허리 뒤쪽에 디테일로 사용하였고, 비대칭의 디자인으로 리듬감을 주었다. 페티코트 룩은 속치마로 대응 가능한 스타일로 망사를 덧대서 풍부하고 화려한 느낌의 실루엣을 표현하였다. 노출과 착장위치 변화의 측면에서는 어깨부분을 전체 노출하였고, 코르셋과 페티코트를 겹옷으로 착용하게 하였다.

구성요소로는 수직 절개선을 사용하여 상의는 피트 시키고 하의는 넓혀, 아우어글래스 실루엣을 표현하였다.

<그림 40>은 타이트 레이싱을 응용한 코르셋과 페티코트의 도식화이다. 작품 III의 상의는 입체재단으로 제작하였으며, <그림 41>은 작품 III의 상의 패턴이다. 스커트 하의의 패턴은 평면패턴으로 제작하였으며, <그림 42>는 작품 III의 스커트 패턴이다. <그림 43>은 타이트 레이싱을 응용한 코르셋과 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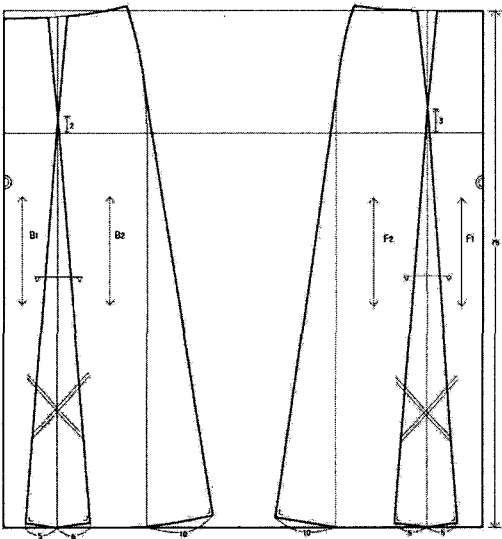


<그림 40> 작품 III의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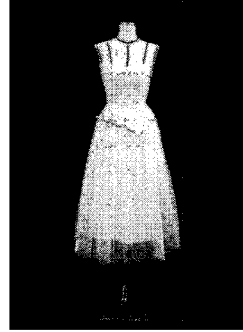
축도 10 20Cm

<그림 41> 작품 III의 상의 패턴



<그림 42> 작품 III의 스커트 패턴

티코트 패턴을 봉제하여 제작한 실물사진이다.



<그림 43> 작품 III의 실물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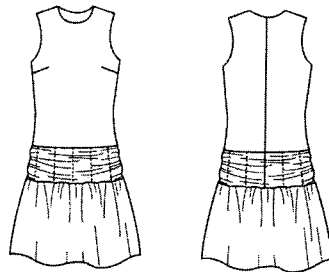
## 2) 작품 IX

작품 IX는 라제리룩 중 착용위치의 변화에 초점을 둔 디자인이다. 디테일과 노출 변화의 측면에서는 속옷으로만 착용했던 브래지어를 디테일화시켜 슈미즈 위에 덧입는 스타일이며, 브래지어의 착용위치의 변화로 인해 가슴을 강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에로틱함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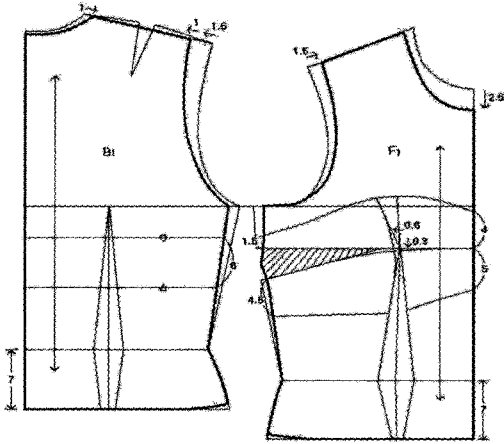
구성요소는 슈미즈의 허리선과 스커트에 셔링과 개더로 주름을 잡고 브래지어 중앙에 장미꽃 장식(59)을 디테일로 사용한 디자인이다.

<그림 44>은 셔링을 응용한 슈미즈와 브래지어의 도식화이다. <그림 45, 46>은 작품 IX의 원피스의 패턴이며, <그림 47>은 브래지어 패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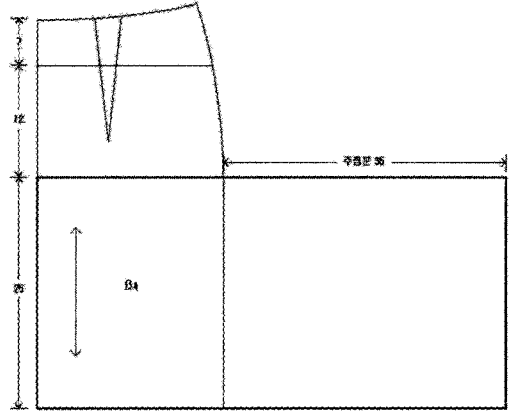
<그림 48>은 셔링을 응용한 슈미즈와 브래지어 패턴을 봉제하여 제작한 실물사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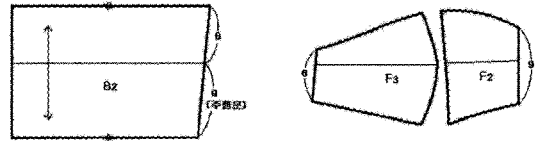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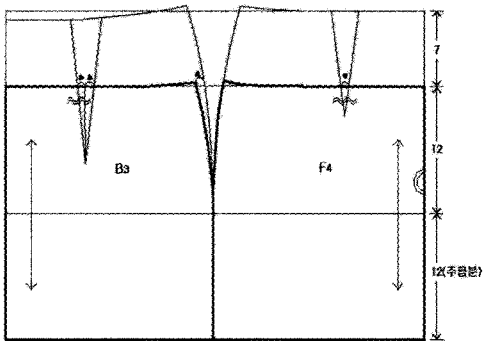
<그림 44> 작품 IX의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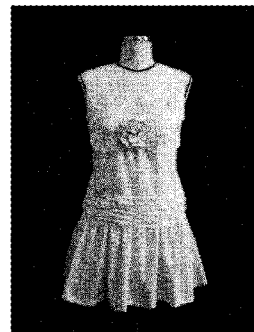
<그림 45> 작품 IX의 상의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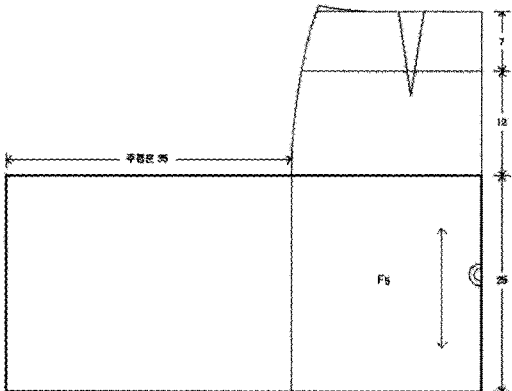
<그림 46> 작품 IX의 하의 패턴



<그림 47> 작품 IX의 브래지어 부분 패턴



<그림 48> 작품 IX의 실물사진



##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란제리룩의 표현적 특성과 그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의복제작에 필요한 패턴을 연구하는데 있었다.

란제리룩의 표현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속옷이 속옷으로서의 역할을 주로 했던 과거 속옷과는 다르게 속옷이 겉옷화 되면서 착용 위치가 변화된 다양한 디자인의 란제리룩이 정착되었다. 은

페더어 왔던 속옷의 소재나 형태가 그대로 걸옷으로 나오게 됨으로써 노출의 심화 현상과 소재변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타이트 레이싱이나 가터벨트 등의 디테일로 장식화 시킴으로 디테일의 변화가 생겼다.

속옷의 걸옷화 현상에서 나타난 란제리룩의 구성요소를 실루엣, 여밈, 다트와 절개선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루엣은 인체미의 표현에 중점을 두어 허리를 가늘게 조여주고 상대적으로 스커트를 크게 부풀린 아우어글래스 실루엣이 있으며 그 다음에 타이트 실루엣이 많은 편이었다. 또한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한 타이트 실루엣이나 자연스럽게 몸에 흐르는 듯한 H라인 실루엣이 많은 편이다. 여밈은 의복을 여미는 목적으로 벨트나 지퍼, 혹, 타이트 레이싱 등을 사용하는데 현대 패션에서는 여밈이 장식적인 용도로도 사용된 예가 많다. 또한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하여 여밈을 없앤 형태도 있다. 다트와 절개선은 사선, 수직선, 수평선 등 여러 개의 절개선을 넣어 퍼트 시킨 형태가 많았으며, 셔링이나 주름을 사용하여 가슴을 강조한 것도 있다.

이상의 구성요소를 기초로 하여 총 4작품의 실물 디자인 및 패턴을 제작하였다. 패턴은 입체재단에 의한 패턴 2개, 입체재단과 평면패턴을 함께 사용한 패턴 1개, 평면패턴 1개를 제작하였고, 패턴제작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평면제도법은 바디 사이즈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바디에 착장을 했을 때 조금씩 오차가 생겨 다시 보정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그러나 손쉽게 그릴 수 있고 원단의 손실이 적다는 장점이 있었다. 입체재단법은 직접 바디에 드레이핑을 하였기 때문에 바디에 착장했을 때 오차가 적었다. 다만 머슬린의 손실과 디자인에 따라 작업시간이 많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란제리룩 중에서 몸에 밀착되는 형태의 의복은 입체재단법이 더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단, 신축성 있는 소재인 경우에는 평면제도나 입체재단 모두 치수를 약간 작게 하여 패턴을 제작하여야 할 것이다.

작품제작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속옷의 걸옷화 현상에 따라 코르셋과 페티코트, 슈미즈와 브라지어를 복식에 접목시킨 결과, 신체를 인위적으로 부각시킴과 동시에 신체 노출에 의한 복식미를 표현 할 수 있었다.

둘째, 여성의 신체 중 관능미의 포인트가 되는 가슴을 입체 형태 돌출시키고 허리를 조이는 실루엣을 표현함으로써 속옷의 특징적인 형태가 잘 나타났다.

셋째, 보정용 속옷의 형태나 바디라인을 응용한 디자인은 인체의 유연한 곡선미를 강조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속옷이 가진 본연의 기능인 보호의 기능에서 벗어나 속옷을 걸옷에 접목시킨 복식형태를 창안함으로써, 속옷의 걸옷화 현상이 단지 시각적인 자극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복식조형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21세기의 시대적 이상으로서 여성의 조형적인 육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란제리룩은 새로운 형태로 계속 유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속옷의 걸옷화가 특정시대의 유행 경향인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앞으로 계속적으로 걸옷화된 속옷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속옷룩에 대하여 디자인뿐 아니라 다양한 소재와 색상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분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신체 사이즈 중에서 표준체형에 해당되는 여성 모델을 선정하여 모델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패턴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동일한 디자인에 대하여 입체재단과 평면패턴 제작의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는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1) Newman, Karoline & Bressler, Karen (1997). *A century of lingerie*. New Jersey: Chartwell Books, p.

- 11.
- 2) 이상례 (1997). 세기말 현상으로 본 속옷의 겉옷화 현상. *복식*, 35, pp. 325-326.
- 3) 김교옥 (1976). Bustle의상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인문과학논집*, 9, pp. 103-123.
- 4) 최영옥 (1983). Corset에 관한 고찰. *안동대학교 논문집* 5(1), pp. 655-682.
- 5) 오경숙 (1985). Undergarment의 변천사적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박길순 (1991). 한국 현대 여성복식의 발달에 미친 요인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7) 이순자 (2000). 여성 속옷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8) 이상례 (1997). *op. cit.*, pp. 325-341.
- 9) 라의숙, 남윤자 (1998). 현대복식에 나타난 Infra-Apparel.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논집*, 2(1), pp. 51-62.
- 10) 양숙희, 이의경 (1999). 패션에 나타난 페티시즘 연구: 언더웨어 페티시. *한국의류학회지*, 23(2), pp. 272-283.
- 11) 최원 (1995). 서양여자 속옷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고영아, 최현숙 (2000). Corset의 Supra현상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복식*, 50(4), pp. 165-180.
- 13) 최은희, 송미령 (2001). 인프라 현상을 활용한 드레스 디자인 개발. *복식문화연구*, 9(4), pp. 549-561.
- 14) 이은영 (2003). *복식디자인론*. 서울: 교문사, pp. 197-200.
- 15) 김종복 (1997). *패션감각탐구1*, 서울: 도서출판 시대, p. 159.
- 16) Fontanel, Béatrice (1997). *Support and seduction: A history of corsets and bras*. New York: Harry N. Abrams, Inc, p. 146.
- 17) 이상례 (1997). 위의 책, p. 325.
- 18) 박옥련 (1994). *복식과 인간*.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p. 233.
- 19) 김수경 (1998). 서양복식에 표현된 여성인체의 해석에 관한 고찰. *복식*, 37, p. 177.
- 20) Martine, Richard, & Koda, Harold, 이선재 역(1996). *Infra apparel*. 서울: 경춘사, p. 51.
- 21) Chenoune, Farid (1996). *Jean Paul Gaultier*. London: Thames & Hudson, p. 46.
- 22) Martine, Richard, & Koda, Harold, 이선재 역. 위의 책, p. 43.
- 23) Spring 2005 Womens Collections. *First View Collections Online*. retrieved April 2, 2005, from <http://www.firstview.com>
- 24) Spring 2005 Womens Collections. *op. cit.*
- 25) Spring 1998 Womens Collections. *FirstView Collections Online*. retrieved April 2, 2005, from <http://www.firstview.com>
- 26) Spring 2005 Womens Collections. *op. cit.*
- 27) Spring 2005 Style. com. *The online home of Vogue & W*. retrieved 2005, April 3, from <http://www.style.com>
- 28) Spring 2000 Womens Collections. *FirstView Collections Online*. retrieved April 2, 2005, from <http://www.firstview.com>
- 29) The Kyoto Costume Institute. *La moda, Italy*: Taschen GmbH, p. 180.
- 30) Fall 2003 Womens Collections. *FirstView Collections Online*. retrieved April 7, 2005, from <http://www.firstview.com>
- 31) Fontanel, Béatrice (1997). *Support and seduction: A history of corsets and bras*. New York: Harry N. Abrams, Inc, p. 143.
- 32) The Kyoto Costume Institute. *op. cit.*, p. 169.
- 33) 높은 신축성과 탄력성을 필요로 하는 스트레치 강도를 뜻하며, 주로 몸의 사이즈를 축 소되어 보이는 효과와 함께 신체의 선을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지닌다: Hollen, Norma R. (1988). *Textiles*, New York: Macmillan, p. 138.
- 34) 이호정 (1987). *복식디자인*. 서울: 교학연구사, p. 15.
- 35) 이은영 (2003). 위의 책, p. 197.
- 36) Kidwell, Claudia Brush, & Steele, Valerie (1989). *Men and women: Dressing the part*.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pp. 54-55.
- 37) 차혜경 (1994). 지퍼를 활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7.
- 38) 조윤주 (1995). *복식 디자인에 있어서 노출을 통한 선정적 표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0.
- 39) Spring 2000 Womens Collections. *op. cit.*
- 40) Fontanel, Béatrice (1997). *op. cit.*, p. 143.
- 41) The Kyoto Costume Institute. *op. cit.*, p. 185.
- 42) Fall 2004 Womens Collections. *FirstView Collections Online*. retrieved April 8, 2005, from <http://www.firstview.com>
- 43) 조경희 (2003). *현대패션의 미*. 서울: 경춘사, p. 158.
- 44) Fall 2001 Womens Collections. *FirstView Collections Online*. retrieved April 10, 2005, from <http://www.firstview.com>
- 45) Spring 2004 Womens Collections. *FirstView Collections Online*. retrieved April 10, 2005, from <http://www.firstview.com>
- 46) Spring 2004 Womens Collections. *op. cit.*
- 47) Spring 2004 Womens Collections. *op. cit.*
- 48) Spring 2001 Womens Collections. *FirstView Collections Online*. retrieved April 2, 2005, from <http://www.firstview.com>
- 49) Fall 2003 Womens Collections. *op. cit.*
- 50) Spring 2004 Womens Collections. *op. cit.*
- 51) 최경원, 김세나, 유제부 (2005). *World fashion designer story*. 서울: 패션 인사이드, p. 101.
- 52) Spring 2005 Womens Collections. *op. cit.*
- 53) Spring 2002 Womens Collections. *FirstView Collections Online*. retrieved April 5, 2005, from <http://www.firstview.com>
- 54) Spring 1998 Womens Collections. *op. cit.*

- 55) Spring 2000 Womens Collections. *op. cit.*
- 56) Spring 2004 Womens Collections. *op. cit.*
- 57)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4). *Size Korea 2004: 표준체형 한국인*. pp. 15-20.
- 58) 이명희, 박해숙 (1981). *서양의복구성*. 서울: 수학사, pp. 30~33.
- 59) 장미꽃 장식: 16세기 초 여성들은 향수를 최음제로 사용해 가슴사이에 향낭을 달고 다녔는데 이것이 오늘날 브라지어 중앙에 장미꽃 자수로 장식하는 관습이 생기게 하였다. : 이의정, 양숙희(1999). *op. cit.*, p. 273.